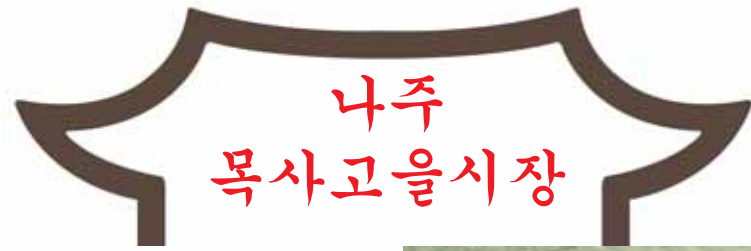


# ‘4고 9경하고’ 흥겨워라... 들썩들썩 문화장터

〈4일과 9일 열리는 5일장〉



나주시 삼도동에 자리한 나주 목사고을 시장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는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직접 고기를 구워먹는 ‘셀프 야외 바비큐’(왼쪽) 행사장과 ‘들썩들썩 토요일 문화장터’.

해가 누엣누엣 금성산 너머로 들어가는 토요일 오후 6시. 나주대교를 건너자 오른쪽으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나주목사고을 시장이 보인다.

시장광장에 들어서자 무대에서 색소폰 소리가 흘러나오고 광장에는 야외 바비큐 파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시장 한편에 마련된 행사부스 앞. 바비큐 파티에 참가하려는 가족들이 시장에서 자체 제작한 염전을 환전하기 위해서 줄을 서있다. 환전을 마친 가족들이 염전을 들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각자 손에 바리바리 무언가를 들고 나온다. 셀프 야외 바비큐를 위해서 시장을 돌며 상상하고 맛좋은 쇠고기와 새우, 조개, 야채 등을 직접 구입한 것이다.

염전은 2000원과 500원 두 종류. 4인 기준으로 6만원 정도를 환전하면 쇠고기와 새우, 조개 등 해산물까지 푸짐하게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한다. 테이블마다 숯과 가위 등 구이에 필요한 도구 세트를 제공하는데 비용은 테이블 포함 5000원이다.

◇고기굽고, 장도 보고, 문화체험도 하고=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청각을 자극하고, 시장 광장은 이내 군침도는 구수한 냄새로 가득하다.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시장 광장에서 진행되는 ‘셀프 야외 바비큐 행사’에는 작은 음악 콘서트와 영화감상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펼쳐져 즐거움을 더한다.

바비큐 파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준비된 숯불 테이블은 24개인데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넘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통시장 안에서 추진된 셀프 야외 바비큐 프로그램은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

## 먹을거리·볼거리 풍성... 토요일엔 문화공연 다채 야외 바비큐 파티에선 음악 즐기고 영화도 보고 수도권 관광객 방문 등 전국 대표시장으로 성장

정받고 있다.

다양한 공연과 구수한 고기굽는 냄새가 어우러진 셀프 야외 바비큐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외곽으로 이설된 시장이 주택가가 없어 민원으로 부터 자유로운 지리적 장점을 살렸기 때문이다.

나주 목사고을 시장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전통시장의 주된 고객인 50~60대 층뿐만 아니라 30~40대의 가족단위 주민과 외지 관광객까지 끌어들이고 고객층을 다양하고 젊어지게 하고 있다.

지난해 한여름과 가을, 겨울에 시선별로 진행된 바비큐 프로그램은 나주 목사고을시장 사업단에 의해 기획하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시장 협동조합에서 대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가족과 함께 바비큐 파티에 나온 나주시민 이수행씨는 “지난해 여름 셀프야외 바비큐 파티에 참가했었는데 너무 좋어서 올해도 왔다”며 “6인 가족이 외식하려면 20만원 가량 나오는데 이곳 바비큐 행사에서는 문화공연도 보며 쇠고기와 각종 싱싱한 해산물을 실컷 구워 먹어도 10만원도 안 나온다”고 맛과 가격에서 만족해 했다.

나주 목사고을 시장은 금계 상설시장과 성북 5일시장을 통합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지난 2012년 1월에 이설·개장했다. 청동길 14에 위치한 나주 목사고을 시장은 부지면적 2만7338㎡, 건

나주 목사고을시장에서는 염전으로 환전해 장을 볼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6만원이면 쇠고기, 조개 등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팔방수 만들기, 나무 물고기 색칠하기, 타일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아이들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특히 나주 북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참여한 ‘개미장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팀을 이뤄 10여 팀이 참가해 옛 전통시장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있다.

목사고을 시장은 또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상생도 시도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높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첫 입주기관이자 목사고을 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우정정보사업센터는 지난 7월에 ‘전라도 전통 젓갈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 김치 체험프로그램에는 우정정보센터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본인이 담근 김치를 가져가는 것은 물론 홍어와 머릿고기를 함께 시식하며 전라도 특유의 맛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목사고을 시장 사업단은 혁신도시로 입주하는 기관들과 상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5일장과 토요일이 겹치는 날에 펼쳐지고 있는 ‘들썩들썩 토요일 문화장터’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구분이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흥겨운 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시장의 활성화에 큰몫을 차지하고 있다. 행사에는 신명나는 사물놀이뿐만 아니라

팔방수 만들기, 나무 물고기 색칠하기, 타일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아이들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특히 나주 북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참여한 ‘개미장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팀을 이뤄 10여 팀이 참가해 옛 전통시장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있다.

목사고을 시장은 또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상생도 시도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높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첫 입주기관이자 목사고을 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우정정보사업센터는 지난 7월에 ‘전라도 전통 젓갈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 김치 체험프로그램에는 우정정보센터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본인이 담근 김치를 가져가는 것은 물론 홍어와 머릿고기를 함께 시식하며 전라도 특유의 맛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목사고을 시장 사업단은 혁신도시로 입주하는 기관들과 상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나주 배 호주 수출 첫 선적



나주 배가 호주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나주시와 나주배 원예협동조합(조합장 이상계)은 지난 14일 나주배농협 부덕동 유통센터에서 나주 배의 호주 첫 선적 기념행사를 가졌다. 첫 선적 물량은 신고배 13.6t(5kg 들이 5440박스)다.

그동안 나주 배가 미국과 대만, 중국 등 마중과 동남아 등지에 활발하게 수출돼 왔지만, 지난 8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나주지역을 배 수출단지로 지정함에 따라 호주수출길이 열렸다.

나주시는 그동안 나주 배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 마케팅, 수출에 따른 물류비와 포장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호주지역 진출도 이러한 지원 성과가 결실을 맺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 배의 우수한 품질과 맛, 차별성을 통해 호주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수출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해외판로 다양화 등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교육복지 기관 실무자 협의회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인성)은 지난 13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나주지역 교육복지 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육복지와 관련해 학습·문화·정서·복지 등 다양한 영역을 연계하고, 각 기관별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참여자의 중복지원 방지와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주요 서비스 업무와 2015년도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오인성 교육장은 “협의회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아이디어와 미래의 교육복지 비전 제시를 통해 나주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구성된 나주지역 교육복지 기관 실무자 네트워크는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지역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육 취약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민흥	267-4748
백운	673-4698
동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윤천	371-9818
원월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이농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_ 062 227-9600 | 신문구독 \_ 062 220-0551 | 예방구독 \_ 062 220-0550